

“시절이 홀로 피워낸 꽃의 아름다움, 화폭에 옮겨냈죠”

김혁정 초대전 '이제 꽃을 품다'...1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마음 속 피어난 다양한 조형언어 '사계' 속 담아내 계절 읽어내며 작업한 회화·오브제 등 36점 선배

울긋불긋 피어난 꽃망울 내지는 우주를 유영하는 별들의 움직임같이 보인다. 한 사람의 작업인가 싶을 만큼 다양한 조형언어가 전시장 곳곳을 채우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초대전 '이제 꽃을 품다'를 갖는 김혁정 작가를 최근 전시장에서 만났다.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며 작품세계를 일궈가고 있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파리 유학시절 그린 판화 미발표작부터 수채화, 오브제, 최근작인 '피우다' 연작까지 총 36점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 토박이인 작가는 한 해 동안 그림을 100장 넘게 완성할 만큼 작업에 몰두하던 이였다. 파리에서 공부하고 국내외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오던 그는 몇 년 전 큰 병을 마주하며 휴식을 갖고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소위 '생존' 판정을 받았다. 6년 만의 나들이 격인 2022년 서울 인사아트프라

자 전시에 이어 같은 해 광주에서 지스트 오름아트홀 개관 초대전, 지난해에는 자신의 석사논문 '화순 천불동의 석불과 석탑'을 주제로 한 드영미술관 초대전까지 열었다.

이번 초대전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이후 광주에서 세 번째로 여는 전시인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품어낸 근작들이 메인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벚꽃이 연상되는 분홍빛 '봄', 푸른 싉죽 숲을 거니는 듯한 '여름', 무수한 낙엽 무더기로 둘러싸인 '가을', 햇볕에 반짝이는 '겨울'의 눈 쌓인 거리까지, 그가 표현해낸 '사계'는 관객 저마다의 사유를 불러오게 한다.

“그림 속 풍경은 피어나는 꽃이기도, 별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꽃으로 피어난 별과 같이 유희적인 세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해요. 계절을 읽어내며 작업했어요. 봄여름가을겨울에 대한 색을 유추해볼 수 있죠. 나름의 변주곡으로 사계를 노래하는 작품들입니다.”



작품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에 선 김혁정 작가.

작품 밑 캡션은 과감히 생략했다. 문학에서의 '독자 반응 비평'과 같이 관객이 그의 그림 자체에서 오롯이 무언가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이번 전시 주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시절이 꽃을 피우는 것이지, 꽃이 피어 시절을 아는 게 아니에요. 유기적 관계로서 꽃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그걸 품는 거죠. 그림 속 피어오르는 각자의 꽃을 떠올

려보며 관객들도 마음속 울림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밖에도 전시장에서는 광배를 두른 부처의 형상을 나타낸 철사줄 오브제, 갈치 상자를 캔버스 삼아 그린 회화, 땅의 질감을 강조해 모성의 송고함을 담아낸 '대지의 노래' 등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자유로움 속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피어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최명진 기자

소리꾼 김다정 수궁가 무대

내일 전통문화관 토요일공연, 하은비 피리산조 공연도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즐기는 국악 한마당'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6일 오후 3시 토요일공연에서 판소리 산조 무대를 펼친다.

이날 공연은 소리꾼 김다정의 보성소리 강산제 '수궁가' 중 '동을 바라보니 대목부터 백마주 대목까지'로 막을 올린다. 옛 소리의 맛을 오롯이 표현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고수는 김준영 민속타악연구회 대표가 맡는다.

청년 국악인 김다정은 우석대 공연예술학부 및 전남대 일반대학원을 졸업했다. 구미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우수상 및 여수전남국악제 판소리 명창부 대상, 제26회 서원제보성소리 축제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두 번째 무대는 하은비 산조 연주



소리꾼 김다정

산조 연주자 하은비

자의 박범훈류 피리산조다. 무대 장구 장단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안상용 씨가 맡는다.

연주자 하은비는 목원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2회 영암 전국국악대전 일반부 기악 부문 우수상 및 제5회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기악 부문 최우수상, 제15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가무악 고법 연희 대제전 일반부 기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최명진 기자

슈퍼루키 'SURL' 콘서트

26일 광주예당 소극장

록 음악, 블루스 기반 4인조 밴드 SURL(설) 콘서트가 빛고을에서 펼쳐진다.

밴드 이름인 '설'은 말씀 설(說)의 의미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밴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컬&기타 설호승, 베이스 이한빈, 드럼 오명석, 기타 김도연으로 구성돼 있다.

2018년 9월 데뷔한 SURL은 '2018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대상, 'EBS 올해의 헬로루키 with KOCCA' 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 '뮤즈온 아티스트', 'CJ 문화재단 튜업 21기'에 선정되며 슈퍼루키 이상의 존재감을 뽐냈다.

2019년 싱글 앨범 발매 후에는 단독 콘서트를 1분 만에 매진시킴과 동시에 독일, 대만, 일본, 태국 등 해외 공연 러브콜을 받으며 글로벌 밴드로서의 가능성 또한 엿보게 됐다.

2022년에는 첫 정규앨범 발매 후 국



4인조 밴드 'SURL'

내 6개 도시에서 전국투어를 성료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13개 도시 북미 투어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음악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Cilla', 'Dry Flower', 'The Lights Behind You' 등 탄탄한 연주력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00)에서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작가와 함께 종이접기 체험

내일 시립미술관 전시연계, 정재일과 함께하는 수학놀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우주의 언어-수' 참여작가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체험이 마련됐다.

오는 6일과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시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종이접기 작가 정재일과 함께 종이접기의 미학과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자리다.

체험은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 전시 티켓을 구매한 초등학교 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현장 또는 온라인(<https://naver.me/FLZU7xXd>)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참여작가 정재일은 2015 세계 종이접기 창작작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해 종이접기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최명진 기자



'우주의 언어-수'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정재일 작가의 종이접기 작품들.

특히 종이의 크기와 두께, 질감 등에 맞춰 작품을 창작하고 머릿속에 복잡한 설계 도면을 그려 바로 종이 접기를 해 보는 이에게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2024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